

參考文獻

- 三島由紀夫：『日本文學全集』68(三島由紀夫集)，新潮社，1965.
 村松剛：『三島由紀夫－その生と死』，文藝春秋社，1971.
 松本徹 編著：三島由紀夫，河出書房新社，1990.
 三好行雄(編)：『近代小説の讀み方 (1)』，有斐閣新書，1979.
 新潮社(編)：『三島由紀夫全集』30(評論 “私の過歴時代”) 1977.
 三好行雄(編)：三島由紀夫必携，學燈社，1970.
 遠藤嘉基 外：『日本文學史』，中央圖書，1981.
 磯田光一：『殉教の美學』，冬樹社，1979.
 相原和邦(外)：『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三島由紀夫』，有精堂，1975.
 白川正芳編：『批評と研究，三島由紀夫』，芳賀書店，1974.
 解釋と鑑賞：『三島由紀夫－その豊饒と不毛』，東京：至文堂，1978. 10.
 朝長のり 編著：日本文學論叢，南榮文化社，1984.
 朴 尙均 譯：日本近代文學全集 6.『潮騒』，教育出版公社，1981.
 世界文藝大辭典(上)：成文閣，1975.
 新潮社(編)：三島由紀夫 全集 3，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27，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0，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1，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2，新潮社，1977.
 三島由紀夫：假面の告白，新潮文庫，1994.
 三島由紀夫：愛の渦，新潮文庫，1992.
 三島由紀夫：潮騒，新潮文庫，1986.
 三島由紀夫：金閣寺，新潮文庫，1989.
 三島由紀夫：花ざかりの森・憂國，新潮文庫，1986.
 尹致富：韓國海洋文學研究，學文社，1994.
 李善榮：문예사조사，民晉社，1994.
 N. 프라이：批評의 解剖，한길사，1995.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Functions of Complementizers and Tense

김진석¹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unctions of complementizers, and to analyse the temporal system of tense in independent clauses and complement clauses. It has often been observed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Comp and Infl. For example, the selection of complementizers depends on whether or not Infl is tensed. Chomsky & Lasnik(1991) argues that Comp is not a feature of the verb and does not license trace of subject unlike inflectional elements. Following Enc(1987), it is assumed that S' is the maximal projection of Comp, that S is the maximal projection of Infl, and that S is the complement of Comp. Thus, Comp governs S. In this respect, Enc(1987) claims that a matrix Comp denotes the utterance time. Furthermore, Pollock(1991) and Chomsky & Lasnik(1991) argue that the internal structure of IP should be expanded to allow the functional categories of T, Neg, AGR to heads of their own maximal projections. The category headed by Tense(T) is Pollock's(1991) TP, a category dominating VP. In a vein similar to Pollock(1991), Chomsky & Lasnik(1991), and Lasnik(1993), temporal systems of tense in independent clause and complement clause are analysed by considering the reference time, the speech time, and the event time. Intervening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강사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between TP and VP is a new category corresponding to the phrase denoting the event time, the direct complement of T. In clauses with perfective *have*, the head of perfective verb phrase would be transitive, and would subcategorize an Event VP. In this study, the important functions of Comp in tense will be captured by stating that Comp can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shifted reading and the simultaneous reading in complement clauses.

1. 서론

어떤 범주를 통사적 또는 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제는 동사의 상적분류, 관점상, 보문소와 절(clause)의 유형, 시제 간의 작용역(scope) 등과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시제는 언어학의 중심적 논의들 중의 하나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시제를 문장의 운용자(sentence operator)로 간주하는 형식의미론의 시제논리(tense logic), 독립절 및 종속절에 나타나는 시제의 의미에 대한 통사적 분석, 문장 간의 시간관계를 설명하는 담화표상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시제와 상으로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을 구분하고 시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텍스트분석 등이 있다.

담화표상구조는 상황상(aktionsart)²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 간의 시간관

-
2. Vendler(1967)는 상황상을 상태와 비상태로 대별한다. 후자는 활동, 성취, 완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건(event) 자질을 갖지만, 전자는 사건자질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개념은 학자 간 다소 차이가 있다. Comrie (1976:51)는 성취와 완수가 사건에 속하는 것으로, 활동은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Bach(1986)는 상태, 활동, 성취, 완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건성(eventuality)을 사용한다.

김진석

계를 해석한다. Partee(1984)에 따르면 상황상 중 완수동사(achievement)와 성취동사(accomplishment)로 구성된 두 번째 사건이 첫번째 사건을 진전시킨다고 주장한다.

- (1) (a) Fred walked into the room. Susan got up from her chair.
 (b) Fred walked into the room. Susan sat in her chair.

즉 (1a)에서는 둘째 사건의 성취동사에 의해서 첫째 사건 다음에 둘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지만 (1b)에서는 둘째 사건의 활동동사에 의해서 첫째 사건과 겹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 간의 시간해석은 다른 언어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다³.

시제논리도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이한 예문을 유연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모문절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 보문절의 시제가 의무적으로 후행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는 시제논리는 (2)와 같은 보문절의 시제를 설명할 수 없다.

- (2) John saw that Mary is pregnant.

즉 시제논리에 따르면 모문절의 시제가 'saw'와 같이 과거이므로 보문절의 시제도 과거인 'was'가 되어야 한다. 만약 Mary가 임신하고 있는 시간의 폭 내에 John이 보았다는 시간이 있다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고 할지라도 (2)와 같이 보문절의 시제가 현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제의 쓰임을 시제논리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시제논리는 주절에 나타나는 시제와 보문절에 나타나는 시제 간의 의미해석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3. 김진석(1996a,b)에서는 사건 간의 시간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상황뿐만 아니라 관점상, 시간부사, 인과성, 맥락 등의 다양한 언어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3) Peter heard that Mary was pregnant.

즉 (3)에서는 '예전에 Mary가 임신한 사건을 Peter가 들었다'라는 해석과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제논리는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시제논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nc(1987), Zagana(1988), Stowell(1992) 등은 시제에 대한 통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Enc(1987)등은 주로 시제체계에 관여하는 발화시(speech time : ST), 기준시(reference time : RT), 사건시(event time : ET) 등을 통사구조의 어느 지점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나 보문절이나 관계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 간에 갖는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사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문소(complementizer)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보문소가 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논의하며, 아울러 Chomsky & Lasnik(1991)과 Lasnik(1993)의 통사구조를 다소 수정하여 독립절과 보문절에 나타나는 시제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2. 보문소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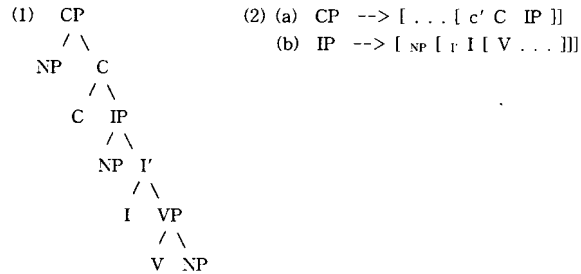
4. 보문소에 대한 제약으로 이중보문소여과(doubly-filled COMP filter)와 that-흔적 여과(that-trace filter)가 있다. 전자는 보문소 자리에 wh-어구와 보문소가 함께 들어 있으면 그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여과된다는 것이다. 후자는 보문소 'that' 뒤에 흔적이 나타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으로 'Who do you think that t won?'과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런 현상들에 대한 논의는 어떤 문법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보문소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보충어(complement)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보문소 'that, for-to, poss-ing' 등은 접속사와 달리 특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문소와 접속사는 각각 매입절(embedded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이라 칭하는 두 개의 다른 의존절(dependent clause)과 관련된다. Jacobs(1995:66)에 따르면 두 절은 공히 주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홈(slot)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문소나 접속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보문소가 나타나는 홈을 보문소 홈(COMP slot)이라고 한다.

Rosenbaum(1967)은 보문소가 보문소의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문소삽입변형(complementizer insertion transformation)을 설정하여 보문소를 구 구조에 나타나게 했다. 좀 더 체계를 정립한 Chomsky(1977)는 보문소에 wh-어를 첨가하여 보문소를 S의 지정어라 칭하게 된다. 이러한 보문소와 S로 구성된 S'를 Chomsky(1986)의 X'이론에서는 COMP의 최대투사범주인 CP로 수정하게 된다⁵.

보문소가 Chomsky(1986)의 구조에서 핵계층이론으로 수렴됨에 따라서 IP에서 관찰되는 L-표시(L-marking)⁶에 대한 지정어-핵 일치

5. Chomsky(1986)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인 N, V, A, P 뿐만 아니라 비어휘범주(Non-lexical Category)인 I(= INFL)와 C(= COMP)도 최대투사범주의 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대투사범주에는 NP, VP, AP, PP, IP, CP가 있으며 이들은 통사구조에 (1)과 같이 나타난다.



6. 구가 N,V,A,P,I,C와 같은 핵에 의해 의미역이나 격을 받는 관계를 핵표시(head marking)라고 할 때, 핵이 어휘적이면 어휘적 표시(head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SPEC-head agreement)의 효과를 CP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Chomsky & Lasnik(1991:53-59)이 논의한 보문소의 특성들을 살펴보자. 첫째, 보문소는 굴절요소와 달리 동사의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문소의 지정어인 CP는 L-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문소는 비논항자리(non-argument position)⁷에 위치하게 된다.

둘째, 보문소는 고유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지배자인 N,V,A,P와 달리 핵이동이나 핵지배를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보문소의 뒤에 남은 흔적을 인허(license)할 수도 없다.

- (4) (a) [_{VP} Admit that he was wrong], John never will t_{VP} .
 (b) [The claim t_{CP}] was made [CP that John was wrong]
 (c) * [_{IP} Bill will visit tomorrow], I think [that t_{IP}]
 (Chomsky & Lasnik 1991)

즉 (a)와 (b)에서는 VP와 CP를 포함하는 XP가 자유로이 문두나 문미로 이동해도 정문이 될 수 있지만 (c)에서는 'that'이 IP의 흔적을 인허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N,V,A,P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보문소는 시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시제요소인 Tense와 일치소 AGR을 갖게 되는 굴절소(INFL)⁸가 보

marking)라 할 수 있다. L-표시란 이러한 어휘적 표시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장벽(Barrier)의 개념에 적합한 표시개념을 말한다.

7. 목적어는 의미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반면에 주어는 의미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주어는 D-구조에서 논항 또는 허사(expletive)에 의해 채워질 수도 있으므로 [SPEC,IP]는 잠정적으로 의미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명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의미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논항자리라 하고 그 밖의 자리를 비논항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보충어나 주어의 자리를 논항자리라 하며 [SPEC, CP]나 부가어의 자리를 비논항자리라 한다.

김진석

문소(COMP)로 이동되는 핵이동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문이 생성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5) (a) What did you see?
 (b) Did Peter see it?

즉 (a)와 (b)의 'did'는 Tense와 AGR을 갖는 굴절소로써 주어 뒤의 위치에서 주어 앞의 위치인 보문소자리로 이동된 것이다.

시제와 보문소 간의 관련성을 Radford(1988:301)는 자질을 설정하여 (6)과 같이 제시한다.

- (6) (a) Embedded Clause : [+COMP] [+embedding]
 [-COMP] [+embedding]
 (b) Main Clause : [+COMP] [-embedding] [+inverted AUX]
 [-COMP] [-embedding] [-inverted AUX]

즉 어떤 절은 명시적 보문소나 도치된 절에 의해 채워지기도 하며, 비워 있는 보문소 C의 구성요소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Radford(1988:303)와 Dixon(1991:49)은 보문소 중에서 'that, wh-'는 다른 보문소와 달리 시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7) (a) I think that Poilot abandoned / * to abandon the investigation.
 (b) I expect for Poilot to abandon / * abandoned the investigation.
 (c) Jane wonders whether Poilot abandoned the investigation.

(Haegeman 1990:106)

8. Chomsky(1981)는 INFL이 시제와 AGR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INFL이 [+Tense]를 가지면 주어동사일치를 위한 자질 AGR(agreement)을 갖게 되며, INFL이 [-Tense]를 가지면 AGR자질을 갖지 못하게 된다.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즉 'that, if'는 한정절을, 'for'는 부정사절을, 'whether'는 절의 어떤 유형이든 모두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문소의 선택은 INFL이 시제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인가를 결정한다.

보문소가 어휘의 하위범주화나 개념구조(Conceptual structure)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범주이다. 일반화 구 구조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 GPSG)⁹에서는 보문소와 주어를 자질로 설정하여 통사범주를 구분한다.

- (8) (a) $V''[-SUBJ] [COMP NIL] = VP$
 (b) $V''[+SUBJ] [COMP NIL] = S$
 (c) $V''[+SUBJ] [COMP A] = S'$ where $A \in \{ that, for, whether, if \}$

여기서 V는 S의 핵이 되며 범주 VP, S, S'는 동일한 계층인 V의 최대투사범주가 된다. S는 SUBJ자질을 갖게 됨에 따라서 VP와 구분되며 S'는 COMP요소를 갖게 됨에 따라서 S와 구분된다.

Levelt(1989)에 따르면 어휘화에 고려될 범주의 유형으로 V-COMP나 S-COMP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V-COMP를 요구하는 동사에는 'believe'와 같은 동사가 있다. 'Atilla believed the world to be flat'에서 'believe'가 할당하는 문법기능은 { SUBJ, DO, V-COMP }가 될 것이다. 보문소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목적어가 V-COMP의 주어와 같으며 V-COMP는 비정형문을 취하게 된다. 또한 'eager'나

9. GB와 GPSG이론은 구조적 모형에서 거의 흡사하지만 설명적 방법에서 GB는 D-구조, S-구조, 표면구조, LF, PF 등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제약이론인 반면에 GPSG는 단일 계층만을 인정하는 문맥자유 구 구조문법이라는 점에서 설명력이 다르다. 또한 GPSG는 형식적 언어이론과 Montague문법에서 출발하지만 Montague문법과 다른 점은 통사부가 의미미부에 예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사와 의미가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easy'와 같은 경우는 문법기능이 {SUBJ, S-COMP}가 된다. 그러나 COMP와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eager'는 주어와 S-COMP의 주어와 동일(John is eager to please)한 반면에 'easy'는 주어와 S-COMP의 목적어와 동일하다(John is easy to please).

보문소는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 ; IF)의 운용자(operator)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발화수반력은 대체로 일정한 문장형식으로 실현되는데, 의문문은 질문, 명령문은 명령, 서술문은 진술의 발화수반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문소가 'that'이라면 의문문이 아닌 서술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보문소는 문장(또는 절)의 유형 즉 정형절(finite clause)이나 비정형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의 하위범주화나 개념구조에 고려되어야 할 범주이며, 보문소 뒤에 나타나는 시제를 결정해 주고 발화수반력의 운용자 기능을 한다. 이런 보문소와 시제 간의 유사성은 시제의 시간체계(temporal system)를 통사구조에 설정하거나 시제가 갖는 해석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3. 보문소와 시제

보문소와 시제 간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Enc(1987)은 보문소가 수의적으로 시간지표를 가질 수 있으며 보문소가 시간지표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시제의 명시어으로써 기능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S'는 보문소의 최대투사이며, S는 굴절소의 최대투사이면서 동시에 보문소의 보충어이기 때문에 보문소는 S를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더하여 A가 B의 최대투사범주를 지배한다면 A는 B의 핵을 지배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문소가 보충절 S의 핵인 INFL을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문소가 시제를 지배할 때만이 시간지표를 갖는 보문소는 시제의 명시어으로써 기능을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지표를 할당하여 통사구조에 나타나는 시제의 의미해석을 시도한 Enc(1987)은 고정원리(anchoring principle)¹⁰를 (9)와 같이 제안한다.

- (9) (a) John died
 (b) [s' COMP₀ [s NP[I' PAST_i VP I]

즉 지표가 할당된 구조 (b)에서 보문소가 정박된 COMP₀가 되면 보문소는 발화시(Speech Time : ST)를 갖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고정원리에 의해 시제가 고정될 수 있다. 또한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시제의 지표와 보문소의 지표가 다른 즉 'i≠0'가 되어야 한다. 만약 현재시제가 되면 당연히 시제의 지표와 보문소의 지표가 동일한 즉 'i=0'가 될 것이다.

Enc(1987)은 보문소에 의해 주절과 보문절 간의 시제의 의미해석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0) John said that Mary was pregnant.
 (11) (a) [Comp₀ [NP [PAST_i [V [COMP [NP [PAST_i
 (b) [Comp₀ [NP [PAST_i [V [COMP_j] [NP [PAST_j]

(a)에서는 보문절의 시제가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 : GC)¹¹를 갖기 때문에 직접결속되어 주절의 시제와 공지표를 갖게 된다. 이럴 경우는 주절의 사건시와 보문절의 사건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해석

10. The anchoring principle(Enc 1987)
 Every tense must be anchored.

11. 다음의 정의는 지배자를 성분통어하는 주어를 요구한다.
 Governing Category(Chomsky 1986)
 - Complete functional complex containing the governor.

김진석

(simultaneous reading)이 된다. 그러나 (b)에서는 보문소가 동사에 의해 지배되고 시제에 의해 결속된다. 따라서 고정조건(Anchoring Condition)¹²에 의해 보문소가 고정됨에 따라서 시제가 고정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후행 이동해석(past shifted reading)이 된다.

관계절에 나타나는 시제도 보문소에 의해 지배된다. 지배자인 보문소를 성분통어하며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최소영역은 관계절을 관할하는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 된다. 예를 들어 (12)와 같은 문장에서 관계절에 나타난 시제의 지배범주는 주절이 된다.

- (12) (a) John saw the man who was crying.
 (b) [Comp₀ [NP [PAST_i [NP [Comp [.... PAST_i
 (c) [Comp₀ [NP [PAST_i [V [NP [Comp₀ [.... PAST_i

즉 관계절의 시제가 지배범주이기 때문에 그 시제는 보문소 또는 결속에 의해 고정될 수 있다. 먼저 결속이론을 살펴 보면 시제의 지배범주는 모문절의 시제가 된다. 그래서 관계절의 시제는 (b)에서와 같이 주절과 공지가 되기 때문에 시제가 고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b)의 해석은 '울고 있는 그 사람을 John이 보았다'라는 동시해석이 된다. 그러나 '발화 시간 10분 전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John이 어제 보았다'고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John이 발화시간 2주 전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어제 보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c)와 같이 보문소가 고정된 Comp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문절의 보문소가

12. Anchoring conditions(Enc 1987)

- (a) Tense is anchored if it is bound in its GC, or if its local Comp is anchored.
 Otherwise, it is unanchored.
 (b) If Comp has a GC, it is unanchored iff it is bound within its GC.
 (c) If Comp does not have a GC, it is anchored iff it denotes the S'T.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주절과 다른 지표가 부여됨으로써 동시해석이 아닌 이동해석이 되는 것이다.

보문절과 관계절에서 Enc(1987)은 모문의 보문소가 발화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만 기준시나 사건시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Zagona(1988)는 발화시와 사건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3) 굴절소 : 논항(발화시) 논항(사건시)

$$\begin{array}{ccc} & 1 & 1 \\ & \text{외부논항} & \text{내부논항}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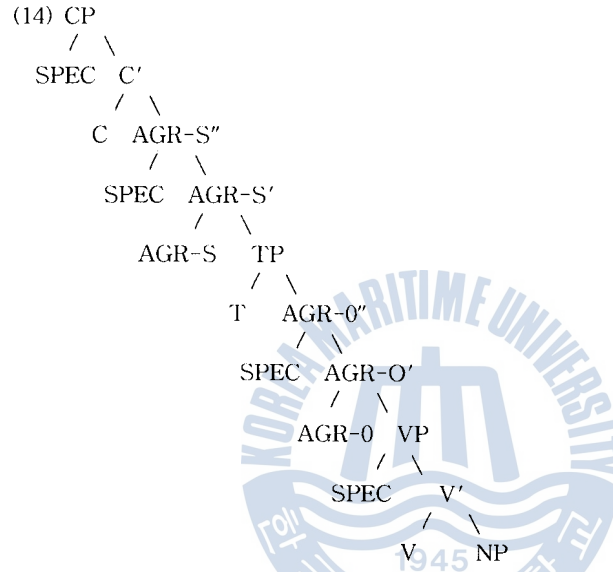
즉 굴절소는 보충어로서 내부논항인 사건시를 취하고 외부논항인 발화시를 취한다. 왜냐하면 굴절소는 이행성(transitivity)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완료구문이 된다면 보문소는 외부논항으로 발화시를 취하며, 이 완료동사구의 핵이 이행성을 갖게 됨으로써 동사구를 하위범주화하게 된다.

발화시를 CP나 IP 중 어떤 위치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Zagona(1988)는 발화시를 IP에 설정하면서도 발화시가 CP와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보문소가 시제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문소를 IF의 운용자로 처리하는 앞의 논의와 보문소를 발화시로 분석하는 Enc(1987)의 논의를 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화시를 CP에 설정한다.

이제 이런 발화시, 기준시, 사건시를 Ouhalla(1990), Baltin(1987), Chomsky & Lasnik(1991), Lasnik(1993) 등의 통사구조를 통해 실현시켜 보자.

Pollock(1991), Chomsky & Lasnik(1991)과 Lasnik(1993)은 굴절소분리가 설(INFL split hypothesis)을 받아들여 (14)와 같은 통사구조를 설정한다.

김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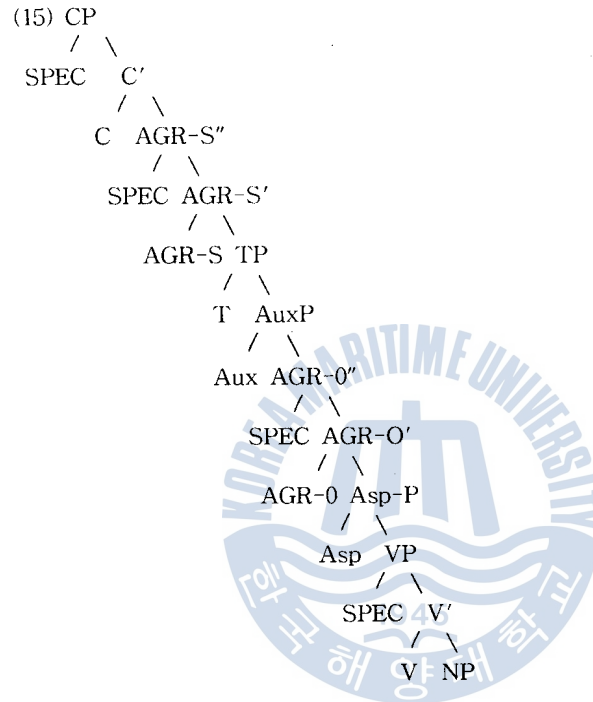
여기서 논항에 격을 부여하는 방법은 핵상승이동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즉 T가 AGR-S로 상승이동이 될 경우 T가 한정성을 갖게 된다면 [AGRs - T]의 결합은 AGRs의 SPEC자리에 주격을 인허하게 된다. 동사가 AGRo로 상승이동이 될 경우 [AGRo - V]의 결합은 AGRo의 SPEC자리에 대격을 인허하게 된다.

통사구조 (14)에 발화시, 기준시, 사건시를 설정하면 발화시는 CP에 나타날 것이며 사건시는 VP에 설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기준시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Ouhalla(1990), Baltin(1987) 등에 의해 논의된 범주 AuxP와 AspP¹³의 설정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통사구조를 (15)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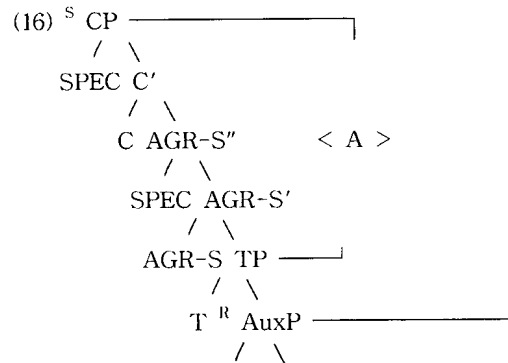
13. Rivero(1992)는 상황상이 동사구 내에 있는 것으로 동사의 개념구조 및 어휘구조 또는 동사의 틀(frame)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상이 시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통사구조에 AspP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spP를 수정된 통사구조에 제시한다.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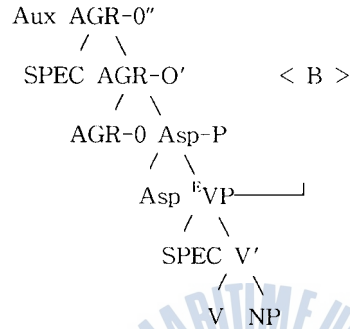
같이 수정하였다.



수정된 통사구조에 설정된 AuxP에 기준시를 표시하는 ^RAuxP를 (16)과 같이 통사구조에 제시할 수 있다.



김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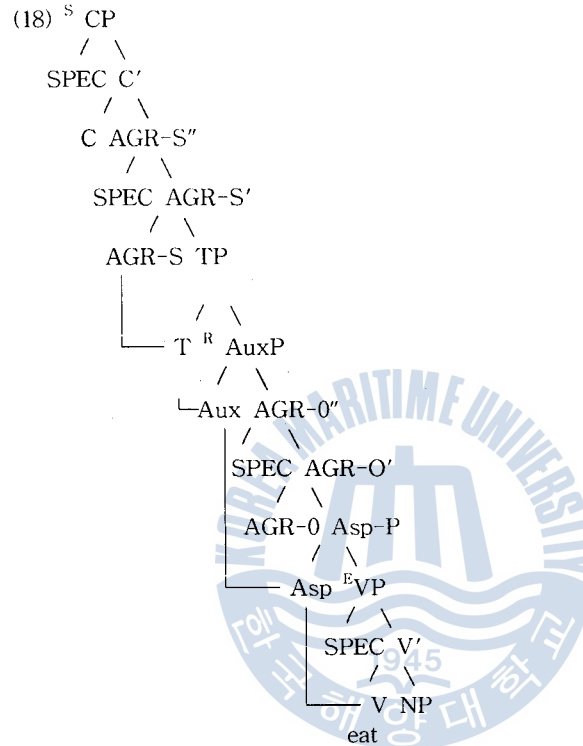
시제의 시간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부분인 <A>에서는 CP에서 TP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S와 E 간의 관계이다. 과거, 미래, 현재시제이면 시간구조는 각각 'E_S', 'S_E', 'S,E'로 나타날 것이다¹⁴. 두 번째 부분인 에서는 Aux-P에서 VP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E와 R 간의 관계이다. 여기서 완료를 나타내는 'have'가 있다면 사건시와 발화시 간의 시간구조는 'E_R'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have'가 없다면 시간구조는 'E,R'이 될 것이다.

시제를 결정하는 두 영역은 TP에서 융합되어 최종적인 시간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완료를 나타내는 'have'가 없다면 단순시제인 과거, 미래, 현재시제는 각각 'E,R-S', 'S-R,E', 'S,R,E'와 같은 시간구조가 된다. 만약 완료를 나타내는 'have'가 있다면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는 각각 'E_R,S', 'E_S,R', 'S_E,R'와 같은 시간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시제를 갖는 문장 (17)은 통사구조 (18)과 같다.

(17) Peter eats dinner.

14. 시간구조가 'S,E'로 나타난다면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시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며, 시간구조가 'S _ E'로 나타난다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는 선형성(linearity)을 표시한다.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동사 'eat'이 'Asp → Aux → T → Agr-s'로 이동되면서 VP의 사건시도 TP까지 이동된다. 이때 T가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시제의 시간체계는 'S,R,E'가 된다. 이와 같이 수정된 시간체계로 과거시제나 미래시제 등의 시간체계를 도식할 수 있다.

보문소가 주절과 보문절 간에 나타나는 동시해석이나 이동해석을 분석하는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논의했다. 예를 들어 (19)는 (20)과 같이 두 개의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19) John said that he arrived on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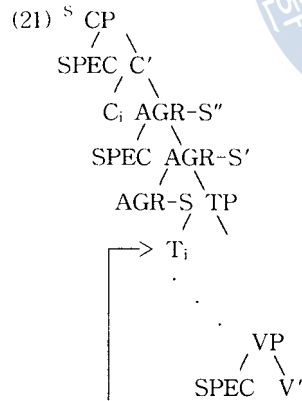
(20) (a) John said on Saturday that he arrived on Friday.

김진석

(b) John said on Friday that he arrived on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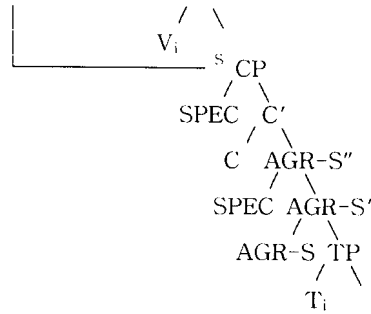
(19)에 나타난 보문절의 시제가 (20a)와 같이 이동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20b)와 같이 동시해석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John이 말하는 시간이 토요일이고 도착하는 시간이 금요일이라면 전자의 해석이 될 것이고, John이 말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것이라면 후자의 해석이 될 것이다.

이런 두 개의 해석을 수정한 통사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자. 두 개의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Stowell(1992)이 제안한 부가이동¹⁵을 받아들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b)와 같은 동시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을 (21)과 같은 통사구조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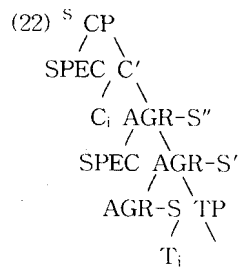
15. Stowell(1992)은 보문절의 CP가 이동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고려한다. 첫째, CP가 AGR-S''에 부가됨으로써 주절의 UT 및 RT를 포함하는 포함해석(inclusive reading)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 CP가 TP에 부가되어 모문의 UT를 공유하는 경우이다. 셋째, CP가 ZP(Zeit Phrase)라는 시간 구에 부가되어 모문의 ET와 동일한 ET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해석을 분석하기 위해 보문절이 모문절의 UT를 공유하는 두 번째 경우를 취하고자 한다.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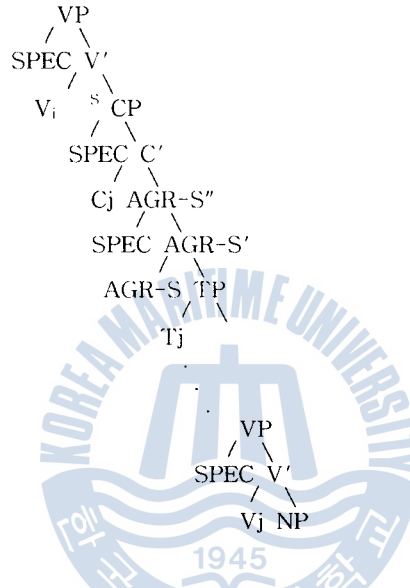


보문절의 보문소 C가 지표를 갖지 못하므로 보문소가 지표를 갖기 위해서 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보문절의 CP가 주절의 TP로 부가이동됨에 따라서 보문절이 주절의 UT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UT와 달리 RT와 ET는 주절과는 다른 지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부가이동이 될 경우 주절과 보문절이 동일한 UT를 갖게 되어 동시해석이 된다.

동시해석과 달리 이동해석은 보문소에 지표가 부가되어 보문소가 고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이동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20a)와 같은 이동해석을 다음과 같은 통사구조로 분석해 보자.



김진석



여기서 주절에 나타나는 보문소의 지표와 보문절에 나타나는 보문소의 지표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절의 사건시가 보문절의 발화시를 지배하고 보문절의 발화시는 보문절의 기준시와 사건시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보문절의 사건시는 주절의 사건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이동해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모문의 보문소가 발화시를 나타낸다는 Enc(1987)의 주장과 발화시를 IP에 설정하면서도 발화시가 CP와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Zagana(1988)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화시를 CP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했다. 사실 시제를 고정시켜 주는 요소가 보문소이기 때문에 보문소는 시제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발화시, 사건시, 기준시를 통사구조로 설명하기 위해 Chomsky & Lasnik(1991)와 Lasnik(1993)의 통사구조를 수정하며 그 수정된 통사구조로 독립절 및 보문절에 나타나는 시간해석을 분석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사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문소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보문소가 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하며, 아울러 Chomsky & Lasnik(1991)과 Lasnik(1993)의 통사구조를 다소 수정하여 독립절과 보문절의 시제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보문소는 문장(또는 절)의 유형 즉 정형절(finite clause)이나 비정형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의 하위범주화나 개념구조에 고려되어야 할 범주이며, 보문소 뒤에 나타나는 시제를 결정해 주고 발화수반력의 운용자 기능을 한다. 이런 보문소와 시제 간의 유사성은 시제의 시간체계(temporal system)를 통사구조에 설정하거나 시제가 갖는 해석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문의 보문소가 발화시를 나타낸다는 Enc(1987)의 주장과 발화시를 IP에 설정하면서도 발화시가 CP와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Zagona(1988)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화시를 CP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했다.

시제의 시간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부분은 CP에서 TP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S와 E 간의 관계이다. 과거, 미래, 현재시제이면 시간구조는 각각 'E__S', 'S__E', 'S,E'로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Aux-P에서 VP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E와 R 간의 관계이다. 여기서 완료를 나타내는 'have'가 있다면 사건시와 발화시간의 시간구조는 'E__R'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have'가 없다면 시간구조는 'E,R'이 될 것이다. 시제를 결정하는 두 영역은 TP에서 융합되어 최종적인 시간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완료를 나타내는 'have'가 없다면 단순시제인 과거,미래,현재시제는 각각 'E,R-S', 'S-R,E', 'S,R,E'과 같은 시간구조가 된다. 만약 완료를 나타내는 'have'가 있다면 과거완료, 현재완료,미래완료는 각각 'E_R,S', 'E,S,R', 'S_E,R'와 같은 시간구조가 된

김진석

다.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통사구조로 독립절 및 보문절에 나타나는 시제를 적절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통사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으며 보문절에 나타나는 다양한 해석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 및 관계절 등에 대한 분석을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겠다.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참 고 문 헌

- 김진석(1996a). *사건 간의 시간해석*. ms. 제 30 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회.
- 김진석(1996b). “영어 담화의 시간체계”. *언어학 19호*. 한국언어학회
- Abusch,D.(1988). “Sequence of Tense,Intensionality and Scope”,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SLA.
- An,D.H.(1980). *Semantics of Korean Tense Markers*. Ph.D.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Bach,E.(1986). “The Algebra of Events”. *LP 9*.
- Baltin,M.(1987). “Do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s Exist?”. *LI 18*.
- Chomsky,N.(1977).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ew York :
North-Holland.
- _____ (1986). *Barriers*. The MIT press
- _____ & Lasnik,H.(1991).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in
J.Jacobs et. al.,eds., *Syntax :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Walter de Gruyter.
- Comrie,B.(1976). *Aspect*. The Cambridge U. Press.
- _____ (1985). *Tense*. The Cambridge U. Press.
- Declerk,R.(1989). *Tense in complement clauses.Sentential
complementation and the Lexicon*. Foris Publication.
- Dixon,R.M.W.(1991). *A New Approach to English Grammar and
Semantic Principles*. Oxford : Clarendon Press.
- Enc, M. (1985). *Tense without Scope*. IULC.
- _____ (1987). “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 *LI 18*.
- Haegeman,L.(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asil Blackwell.
- Jacobs,R.A.(1995). *English Syntax*. The Oxford U. Press.

김진석

- Lasnik, H. (1993). *The Minimalist Theory of Syntax*. ms. 2nd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 Levelt, W. J. (1989). *Speaking :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The MIT Press.
- Manzini, M. R. (1990). *Locality : A Theory and Some of its Empirical Consequences*. The MIT Press.
- Partee, B. H.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P 7*.
- Pollock, J.-Y. (1991). *Clause Structure and Verb Movement*. Seoul Workshop.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The Cambridge U. Press.
- _____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The Cambridge U. Press.
- Rivero, M. (1992). "Adverb Incorporation and the Syntax of Adverbs in the Modern Greek". *LP 15*.
- Rosenbaum, P. S.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The MIT Press.
- Stowell, T. (1982). "The Tense of Infinitives". *LI 13*.
- _____ (1992). *Syntax of Tense*. ms. UCLA.
- Zagona, K. (1988). *Verb Phrase Syntax : A Parametric Study of English and Spanish*.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 (1967). "Verbs and Times", in Z. Vendler, *LP*.